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진 : 마르코 루프니크 작, 만레사 동굴, 바르셀로나, 스페인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잠언 19,21)

1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교구청 소임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해 본 적이 없는 사목 분야를 새롭게 접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인 사목을 임시로 겸임하라는 말씀을 듣고 막상 담당해 보니까 임시로 할 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구장님께 좀 더 길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겁 없이 청했습니다. 교구장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오로지 노인 사목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교구청이라는 데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생각나는 문구가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입니다. 풀이하자면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입니다. 중국 튀순 감옥을 방문했을 때 안중근 토마스 의사가 쓴 글귀입니다. 이 글귀 앞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하느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라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일도 없기 때문에 결과를 내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수고는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교구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또 하느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무엇을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다고 했을 때 교구장님께서 또 하느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수고는 했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쭐떨 이유 또한 없습니다. 수고는 했지만 열매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수고를 다 하지만 겸손히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22)

영원한 삶을 믿ना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 지으며 죽음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은 다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정화를 거치거나 곧바로 하늘나라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영원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고 죽은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락에 들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거치는 정화 과정이 연옥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또 복된 이들과 이루는 친교를 결정적으로 ‘스스로 거부하고 단절된’



상태가 지옥입니다. 이처럼 천국, 연옥,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과 그분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즉 최후 심판에 대한 가르침 역시 사랑과 자비로 회개하라는 호소이며, 영광스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희망”(티토 2,13)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은 히브리어 “아멘”으로

마치는데 첫머리의 “저는 믿나이다”를 되풀이 하고 확인합니다.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4-127 참조) **금빛**

교황님 한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예수님 찾기,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예수님을 선포하기’입니다.

- 2024년 1월 14일 연중 제2주일(첫 제자들) 삼중기도 혼화 중 -



본당 소개

군위성당



제1대리구 3지역에 속한 군위성당(주임신부:류승기 바오로)은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마리아’를 주보 성인으로 1956년 12월 8일에 설립된 성당입니다. 동부리 언덕 위에 위치하여 전망이 아주 좋고, 신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게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7, 80대 신자가 80%이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일 미사 참례 수는 130여 명입니다. 의흥과 부계 2곳의 공소가 있으며 시니어 베드로회와 안나회를 연합하여 격월로 미사 후 친교와 순례를 함께합니다.

류승기 바오로 주임신부는 “마르코, 요한, 로마서, 유튜브 강의를 마치고, 현재 필립비서 강의 중입니다. 성경 공부를 생활화하고 나아가 이에 부응하는 반모임에 전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친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며, 보다 활성화된 본당 사목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재·촬영: **이윤희 카타리나** | 살레시오 기자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평화를 빕니다.



Peace be with you.

[영어]

피스 비 워드 유



[일본어]

主の平和。

슈 노 헤 - 와



[중국어]

请大家互祝平安。

칭 따 지아 후 주 평 안



[베트남어]

Xin chúc bình an.

썬 죽 빈 안



[스페인어]

¡La paz esté contigo!

라 빠스 에스페 콘띠고

교회의 상징들

닭



성당은 ‘닭울음성당’이라고도 하며, 2011년 대구대교구 100주년 기념으로 봉헌된 주교좌 범어대성당 종탑 위(사진)에도 우뚝 서 있다. **금빛**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마르 14,66-72)고 부인했던 장면 등을 통해 닭은 신앙인들에게 ‘깨달음’ ‘회개’의 의미를 던져주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주는 동물로 소개된다. 또 어둠과 악의 힘을 내쫓는 울음으로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예루살렘의 베드로 회개 기념

찬미받으소서(20)

통합 생태론



▶ 읽기

137항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제들이 세계적인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통합 생태론의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성찰을 제안합니다.

▶ 생각하기

Q. 통합 생태론은 무엇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찬미받으소서」회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통합 생태론은 환경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 생태적인 주제를 경제, 사회, 문화, 일상 생활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사회생태와 인간생태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생태론에 ‘통합’이라는 말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의 생태적 담론이 파편화된 형태를 넘어 포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 생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평화와 정의, 그리고 피조물

보호는 서로 철저히 연결된 주제”이고,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성 회복과 열대우림 보존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우리 몸을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일들도 통합 생태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합 생태론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실천하기

“우리는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139항中

생태영성은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합니다. 즉,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관한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분리되거나 대립되는 사안들이 아닌 것 입니다. 아래 영상을 보며 통합적 생태론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세상 모든 문제들을 편협적인 시선보다는 통합적으로 살펴볼수 있는 눈을 길러봅시다.

[영상]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영성 40주간 24강의 ▶



자연 이야기

교구청 나무, 풀 이야기 1
- 히말라야시다 -

히말라야시다



우리 교구청 정원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광나무, 참느릅나무, 아가시나무, 수수꽃다리나무, 측백향나무, 히말라야시다나무, 굴참나무, 회화나무, 감나무, 벚나무 등 참으로 많은 나무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따스한 사랑이 서려 있는 성모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삶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모당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왼쪽 뒤편으로 보이는 나무는 **히말라야시다** 입니다. 이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향백나무와 친척지간입니다. 성무일도(시간전례경)에는 ‘체드루스’로 나옵니다.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고 목질이 견고하며, 또 곧게 자라고 향이 짙고, 쉽게 벌레 먹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백나무 기름은 곰팡이나 방부제, 향수로 쓰였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레위 14, 4-6) 사용하였습니다. 키 큰 나무의 대표처럼

여겨진 이 나무는 ‘주님의 나무’(시편 104,16)불렀고, 에덴동산에 자란 것(예제 31,8)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게 뻗은 가지로 성모님 곁에 서 있는 이 나무를 보면, 십자가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모님 곁에 한없이 머물렀으면 합니다.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성모 어머니의 기도 향기로 축축하게 물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성모 어머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요.

히말라야(하얀나무)시다나무는 예수님을 닮은 나무입니다. 그를 알아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성모 어머니와 함께 신앙의 향기를 내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임성호 베네딕도 신부
(생태환경 및 농어민사목부 담당)



부부 이야기

우리들의 뜨밤(뜨거운 밤)을 위하여

저희는 매일매일 정신없이 사는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를 낳고 더 바빠진 일상이지만 어느 날 아내 크리스티나는 제게 살며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녁에 술 한잔할까요?” 이 말에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잔도 꺼내고 은은하게 촛불도 밝히고, 분위기 있는 음악도 켜놓고 크리스티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부부를 기다리는 것은 ‘뜨거운(?) 밤’이 아니라 ‘뜨거운(!) 전쟁’, 즉 부부싸움입니다. 모처럼 평소에 서로에게 못다 한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크리스티나가 회사 동료들과 안 좋았던 이야기를 저에게 쏟아내면 저는 동감하지 않고 편잔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고충을 이야기하면 크리스티나는 제가 거절을 잘못하는 성격이며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탓이기에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해지라는 해결책을 내려주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말만 하다 보니 화해 없이 끝난 부부싸움은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동갑 부부였지만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땅처럼 건조한 관계였고 뿌리 깊은 갈등이 박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보에서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을 발견한 크리스티나는 2023년 새로운 해를 ‘ME주말’로 시작해 보자고 했고 저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티 성지’로의 발걸음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주말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온전히 둘만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대화 방식을 버리고 ME에서 알려진 대화 방법으로 마음을 나누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어도, 조명과 음악이 없어도 저희 부부의 대화는 뜨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사이 새하얗게 내린 눈이 저희의 결혼 생활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고 피정의 집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는데 겨울이지만 저희 부부 주변에는 봄꽃이 피는 것처럼 따뜻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예쁜 마네킹과 같은 부부가 아니라 매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하느님 보시기에 예쁜 부부가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랑의 대화로 로맨스가 넘치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



정수길 미카엘 & 박소진 크리스티나 부부
(ME 대구협의회)



한 줄 성경말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잠언 22,6)

이야기가 있는 가족 사진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

- 1977년 어머니 견진성사 때 -



나의 친정은 파평윤씨 2대 독자 유교 집안이다. 딸 넷 중 셋째인 내가 가톨릭 집안과 연을 맺으며 친정어머니까지 1976년에 영세를 받았다. 1977년에는 이문희 대주교님이 오셔서 견진성사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 후 얇은 내 신앙이 흔들릴 땐 그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기념 사진을 보면서 흐트러진 신앙을 다잡았다.

한참 후 2015년에 이 대주교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셨을 때 너무 수척해지신 모습에 눈물이 났다. 그때 이 사진을 들고 사제관 앞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주교님께 사인을 부탁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싶은 생각조차 접은 것이 후회로 남아있다. 6년 후 주교님의 선종 소식을 듣고 화살기도로 영원한 안식을 빌며 기도드렸다.

윤정자 막달레나
(경산성당)

※ 가톨릭 금빛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가족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300자 내외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억속으로

세 배



1982년 세배 최홍길 신부와 신자들(경산성당)



1994년 세배 최봉도 신부와 신자들(삼덕성당)

(제공: 교구사료실)

부모와 자녀 관계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는 진솔한 인격적 만남에 용기를 냅니다

이전 지면에서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자기 기능의 기틀’로써 ‘좋은 자기’ 내면화를 위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노력과 달리 자녀가 튕겨낸다는 느낌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무엇을 성찰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나누며 자녀 마음에 잘 닿는 노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모의 말에 자녀가 ‘진짜지?’, ‘약속이다 꼭~.’이라며 확인하고 ‘뭐가!’, ‘아니거든?’, ‘싫어.’라는 부정과 우려될 정도의 침묵이나 대화 거부로 반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서 부모는 자녀가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인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하고 자기 긍정성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의 좋은 자기 내면화를 위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랑을 담은 부모의 표현은 자녀에게 잘 닿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잘 닿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부모의 표현이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언어 선택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부모의 일방적인 ‘안돼’라는 말에 금지당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원래 다 그런 거야’라는 말에 자기 존재가 축소되고 ‘네가 아기니?’, ‘뭐하러 쓸데없이~’와 같은 말로 무시당하면 주춤하고 헛갈려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진 자녀는 확인하고 다음이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얻어내기 위해 떼를 쓰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거나 거짓말

도 합니다. 가끔 부모가 ‘어려서 기억 못 하겠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고 자녀를 생각해 모호한 말로 자녀의 요구를 지나치고 반복적으로 다음으로 미루는 태도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한 말과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약속을 빈번히 지키지 못하고 자녀에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쟁이 부모’와 관계한 자녀의 마음에는 ‘믿을 수 없는 부모’와 ‘의심의 자기’가, 감정 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자녀는 생활에서 사소한 불안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을 다루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렇게 소진된 심리적 에너지로는 자녀가 자기 조절과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건데. 앞으로 너와 약속은 신중하게 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도록 노력할게.”라고 말하고 실천합니다. 용기 있는 사과와 용서로 모호한 감정을 해소하고 자녀와의 인격적 만남으로 주님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지면에서 자녀의 부정적 태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긍정적 표현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 3,3)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청년들의 소리

“젊은이는 은퇴해서는 안됩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총회의 후속 교황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십니다...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1항)

독서모임을 하며 읽게 된 교황님의 권고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의 1항 읽고 저는 젊은이로서, 신앙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가? 나는 생기가 남아있을까?” 선불리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읽어가며 한 구절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젊음은 나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34항)

아! 내 마음이 젊지 않구나. 무엇 때문에 마음에 젊음을 잃었을까 생각해 보니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20살에 세례를 받고 청년회와 주일학교, 청년성서모임에서 봉사했고, 각종 연수와 피정 등 나를 열심히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황 권고를 읽을 무렵엔 10년이다 되어갔기에 대부분의 활동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전례력이 바뀌면서 바뀌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미사곡과 초의 색깔이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며 전례가 저러면... 복사가 저래서... 라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정과 연수를 하면서도 첫째 날은 아이스브레이킹 둘째 날엔 고해성사를 하고 셋째 날은 기쁨에 취해서 집에 가겠지 하며

남들 다 하니 나도 한다는 마음이 반 도장깨기 반으로 참가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마음의 상태가 중년, 노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젊은이는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2014년 8월 14일 이탈리아 스카우트 회원들에게 하신 인사말)

교황님께서 저의 마음을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든 활동을 은퇴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대부분의 활동에 익숙해져 버렸고, 더 이상 도구로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봉사가 기쁨이기보다 일이 되어 버렸고, 경험을 말하면 꼰대가 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는, 그리고 교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을 도구와 일꾼으로 밖에 보지 않는 현실에 은퇴를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보기 힘든 이유는 사회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먼저 젊다는 이유로 봉사를 강요당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대한 인노첸시오
(도원성당)



노년의 패션

21세기 뉴 시니어를 위한 패션스타일링 (6)

♣ 경쾌하게 보이도록 입으면
저절로 젊게 보인다

옷 입기에서 애써 젊게 보이려 노력하다 보면 몸과 옷이 겹도는 느낌을 줄 때가 많다. 이럴 때 간단하게 옷을 입는 방법만 조금 바뀌도 경쾌함을 주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셔츠를 꼭 집어넣어 입어 보자.

셔츠가 허리 밑으로 너무 내려오면 옷이 투박해 보이고 다리 선이 짧아 보일 수 있다. 이때 아주 쉬운 해결책은 팬츠 속에 셔츠를 집어넣는 것이다. 셔츠를 하의에 집어넣는 방법은 아주 쉽지만 은근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또한 손쉽게 체형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스타일링 방법이다. 체형과 개인 스타일에 따라 셔츠를 넣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몸의 중앙 부분에 체중이 실린 체형이라 셔츠를 완전히 다 집어넣으면 배가 부각 될까 두렵다면 프론트턱(front tuck, 사진 ⑤) 방식을 선택해보자.

프론트턱은 셔츠 앞부분만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뒷부분은 빼는 방식인데



셔츠를 넣어 입는 다양한 방법

<https://www.pinterest.co.kr/pin/233272455674463218/>



<https://lrl.kr/fOix>

<https://lrl.kr/fOiy>

<https://url.kr/7x5ioz>

이렇게 하면 측면에 셔츠 일부가 노출되어 앞쪽보다는 측면에 시선이 집중되게 하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 인기 있는 또 다른 셔츠 스타일링 방법은 하프턱(half tuck, 사진 ②)이다. 하프턱은 셔츠의 한쪽은 빼고 다른 한쪽만 팬츠 속에 집어넣는 스타일링 방법인데 이러한 작은 차이들은 셔츠를

입었을 때 조금 더 멋스럽고 패셔너블한 캐주얼 룩이 연출되도록 도와준다.

실제 스타일링에서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셔츠를 밖으로 빼어 입는 것과 안으로 완전히 넣어 입었을 때를 보면 안으로 완전히 넣어 입었을 때 하체의 길이감이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산뜻하고 시원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프턱으로 셔츠의 반만 넣어 입으면 훨씬 경쾌하고 젊은 감각이 느껴진다.

김은경 비아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활기찬 노년

수성성당 '가브리엘 성경대학'



2023년 2학기 종강식 어울림 한마당

수성성당(주임신부: 이상택 리노) 가브리엘 성경대학을 소개합니다. 가브리엘 성경대학(매주 금 10:00-13:30)은 2005년 3월 설립되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 80명과 13명의 봉사자들이 8개 반(사랑, 열매, 친절, 기쁨, 인내, 선행, 진실, 은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0시 미사를 시작으로 성경공부와 취미반(가요, 만다라)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가을 두 차례 성지순례 겸 소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후 진행되는 취미반에서 갈고닦은 실력은 종강식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박춘자 미카엘라 교학처장은 “지난 12월 15일 종강식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 작품 전시회, 장기자랑 등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흥겨운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17명의 어르신들이 개근상을 수상하였는데 건강관리에 노력하여 개근자와 학생 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가브리엘 성경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재·촬영: 박현식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기자

노년의 향기

3대가 레지오마리에 강복장 받은 기쁨

우리 가족은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2016년 교구 세나투스 주최로 3대가 레지오 단원인 세대를 조사해 강복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5월 5일 ‘성모의 밤’ 행사에서 수상자 명단이 호명되었습니다. ‘성서성당 이성자 마리아 가족’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환성을 질렀습니다.

1대 이성자 마리아, 2대 소정하 마리아나, 3대 이태경 모니카, 이은혜 아네스,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하느님의 딸로서 성모님의 군대에 입단하게 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가족에게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강복장에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충실함으로써 레지오마리에 발전과 지역 복음화에 공헌함을 치하하며’ 라는 뜻에 따라 지금도 우리 가족 모두는 레지오마리에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딸 소 마리아나는 사회복지회 간부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성모님 저희 가족을 당신께 불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마리아
(성서성당)



대주교님과 이성자 마리아(좌측 1열)가족

※ 가톨릭 금빛신문은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600자 내외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격유형 알기 (2)

MBTI 성격유형과 신앙생활

MBTI는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의 약자입니다. 캐서린 쿡 브릭스(Katharine C. Briggs)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Isabel B. Myers)가 카를 융(1875~1961)의 초기 분석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한 자기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Myers Briggs'란 글자는 성격유형지표를 고안한 어머니와 그녀의 딸의 성(姓)을 가리킵니다. 이사벨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성격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연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러한 성격유형들을 기술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고안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1923년에 융의 심리유형론(Psychological Types)은 그들이 찾고 있었던 이론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분석심리학자인 칼 융은 인간유형론을 창안하여 인간의 무의식을 분석했습니다. 그때부터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는 융의 성격유형 이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데 그들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융의 심리유형론이 MBTI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MBTI검사는 융의 심리유형 이론을 근거로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 그리고 피터 마이어스까지 3대에

걸쳐 연구·개발된 비진단성 성격유형 검사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 군중사제로 근무할 당시 군종교구 사제연수에서 MBTI를 처음 접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연수에서 MBTI에 많은 매력을 느꼈고 후속 교육을 받았으며 일반강사 자격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가는 곳마다 MBTI를 이용하여 신자들에게 피정이나 연수를 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BTI의 논리에 공감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MBTI가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 역시 MBTI를 공부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당에서 만나는 동료 신자들 때문에 힘들어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다음 호에서는 MBTI와 신앙생활에 관련된 책 소개와 MBTI 한국 도입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수 비오 신부
(주교좌계산대성당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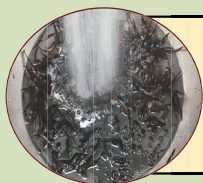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두부뚫 무침

※ 식재료: 톳 350g, 두부 170g, 들기름 1큰술, 국간장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통깨

※ 조리도구: 볼, 채반, 냄비, 면보, 가위, 숟가락, 접시



톳에 굵은 소금 한큰술 넣고 주물러서 깨끗이 씻어준다. 그 후 찬물로 헹궈주고, 찬물에 20분간 담가 놓는다.

냄비에 물을 담고 굵은 소금 1큰술을 넣은 후 담가둔 톳을 5분간 데쳐 준다. 생으로 먹으면 무기비소라는 독이 있어 반드시 데쳐 먹도록 한다. 그 후 다시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빼준다.



두부에 끓는 물을 부어 준 다음 면보에 물기를 짰다. 그리고 물기 빠진 톳 가운데 길이가 긴 것이 있으면 가위로 잘라준다.

볼에 두부, 톳, 국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통깨를 넣고 무쳐준다.



Tip!

톳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성분을 분비합니다.

산책로

대구 올레 팔공산 1코스

대구 동구 도장길 10에 위치한 대구 올레 팔공산 1코스는 시인의 길을 시작으로 북지장사까지 조성된 왕복 5km의 평탄한 산책로입니다. 돌에 새겨진 김춘수, 윤동주 시인 등의 시와 함께 시작하여 돌집마당,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이봉주 선생의 작품이 있는 방짜유기박물관, 도장마을, 북지장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와 함께 포토존으로 유명한 솔숲이 조성되어 있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연과 볼거리가 잘 어우러진 곳입니다. 방짜유기박물관 외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코스 시작점까지 버스로 이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있는 대구 올레 팔공산 1코스를 가볍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빛**



자 가 용

"대구방짜유기박물관" 검색
(성모당 기준 45분)

대중교통

명덕역 → 아양교역 → 버스(금행1) →
방짜유기박물관앞 하차 → 도보 5분
(성모당 기준 1시간)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가톨릭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환길 주간: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E-mail. dgfamily@dgca.or.kr

Fax. 053-250-3078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마지막 주일 발행

가족성지순례 [22]

대정성지



가는길

자 가 용 네비게이션 '천주교대정성지' 검색 (제주국제공항 기준 50분)
대중교통 제주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4 승차 → 버스(151번) → 신평리[동]하차 → 도보 25분 (제주국제공항 기준 1시간 25분)

제주교구 서귀포시에 있는 대정성지는 정난주 마리아가 제주목 대정현의 노비로 37년 동안 고생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66세로 사망하여 묻힌 곳이다. 정난주 마리아는 1773년 정약현의 딸로 출생하여 일찍 천주교에 입교했다. 당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전, 약종 아우구스티노, 약용 요한 형제가 그녀의 숙부들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의 성조인 이벽 세례자요한의 누이였으며 정난주는 황사영의 부인이 되었다.

신유박해(1801년)가 일어나자, 남편 황사영은 조선 교회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려고 배론의 토굴에서 백서를 작성하였으나 발각되어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으로 순교하였다. 정난주는 1801년 11월 21일 두 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귀양길에 올랐으며, 추자도에 이르러 귀양처에 아들과 함께 가기 싫어서 해안가 갯바위에 아들을 내려놓고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 후손은 현재 추자도에 살고 있다. 1994년 9월 5일 순교자 현양 대회 때 김창렬 주교는 강론에서 정난주 마리아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는 않지만, 그는 무혈의 순교자, 즉 증거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였다.

제주도를 여행하시는 신앙인이라면 대정성지를 찾아 정난주 마리아의 참된 신앙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 샬레시오 기자



66호 가정미션 : 사순시기를 맞아 가족이 함께 사순절 모금함을 채워봅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가계부를 쓰시나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4.01.28.(주일)~ 2024.02.11.(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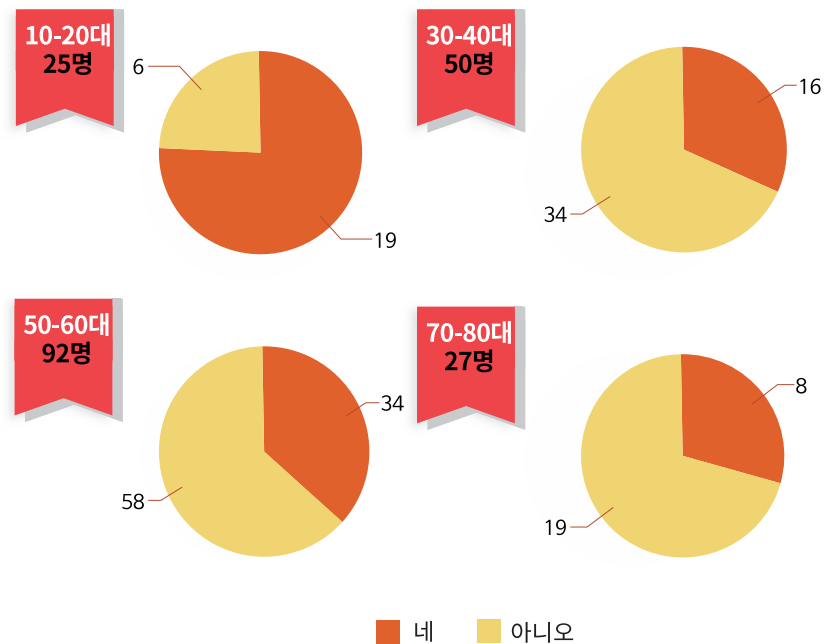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66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 연령대 : (대)
- 가계부를 쓰시나요?
 네 / 아니오

지난(65)호 설문 결과

주제 : 2023년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51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주간)

장 소 교구청 꾸르실료 교육관
기 간 2024.03.07~04.25
시 간 10:00~15:00
대 상 모든 어머니(비신자 가능)
비 용 12만원(7주간, 매주 목)
문 의 053-250-3077 · 3114

대구대교구 14차 약혼자 주말

장 소 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
날 짜 2024.02.23(금)~25(일)
대 상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차이하 부부
 ※ 혼인강좌 수료증 지급
마 감 2024.02.06(화)
비 용 커플당 30만원
문 의 053-250-3077 · 3114

독자 투고 모집

이야기가 있는 가족사진 / 노년의 향기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dgsalesio@naver.com
 ※ 보내실 때 성함 및 연락처 필수 기재
문 의 053-250-3077 · 3114

전시회

전례 조각초 초대전 - 세상의 빛 -

장 소 예담갤러리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일 시 2024.02.19(월)~3.16(토)
작 가 공혜경 데레사 외 8인
문 의 010-3738-0485